

고객의 꿈과 행복을 짓는 기업이 있다. 48년간 한결같은 고객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해온 화성산업이 바로 그곳.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뛰어넘어 최근 위대한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화성산업을 방문했다. 에디터 이은숙 사진 제공 화성산업

꿈을 짓는 기업 화성산업(주)

고객의 행복과 꿈을 짓는 기업, 화성산업

화성산업은 '고객과 사회를 위한 가치 창조' 라는 기업 이념 아래 지난 48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 신용 등 화성산업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업체 대표의 명맥을 이어가는 기업이다.

건설업계의 선두주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화성산업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주택, 건축, 토목, 조경, 환경, 플랜트, SOC, 엔지니어링 컨설팅 분야에 이르기까지 종합건설 부문의 중심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각종 조경상을 휩쓸고 있는 화성산업이 선 보이는 친환경 아파트는 화성의 저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화성산업은 지난 48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할 건축물들을 지어 사회에 이바지하고 후대에 길이 남길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탄생시켰다. 대표적인 화성산업의 건축물로는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월드컵경기장, 월드컵평화의공원, 달성군청사,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대구지하철1, 2호선 등이 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화성 '파크드림' 화성산업의 주택사업 브랜드 '파크드림(Park Dream)'은 첨단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지향적인 주거 공간을 창조해 나간다는 의미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단지 조성과 혁신적인 설계를 통하여 주거의 편리함을 추구해간다는 개념이다. 또한 주거생활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고객이 원하는 주거의 꿈을 화성이 실현하고 만들어가며 고객의 꿈을 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인간 중심의 자연적 삶을 추구하는 신 디지털 라이프를 실현하는 21세기 미래형 주거 공간을 창조하려는 화성산업의 철학이 담긴 브랜드가 바로 '파크드림'인 것.

화성산업은 최근 파크드림 브랜드 이미지(BI)를 새롭게 개편해 향후 주택사업 부문에 적극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단지 배치나 조경에 있어서도 파크드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추구하며,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건강과 쾌적성, 웰빙 트렌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유비쿼터스 환경까지 고려한 주거환경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 개발 부서에서도 분주히 움직이며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케팅 전략 부문에서도 제품의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최신 트렌드가 주거 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 경기는 공공부문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사업의 위축으로 인해 분양 시장 침체의 폭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화성산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부정책이나 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내실 경영을 다져 변함없이 지역 대표 건설업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탈지역화를 통해 전국 곳곳에 '파크드림' 선보인다 지난해 용인 보라 화성파크드림의 성공 분양으로 탄력을 받은 화성산업은 올해부터는 탈지역화를 통해 '첨단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주거 공간' 파크드림(Park Dream)의 영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 한 해에도 구미 상모사곡지구, 화성 향남택지개발지구, 경산시 사동지구, 경주, 포항 등 분양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의 3분의 1 이상이 외지 사업으로 구성되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및 각종 SOC 사업 등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주 능력을 배가할 방침이다.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기업 화성산업은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50여 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탄탄한 기업 구조를 자랑하는 내실 있는 기업이다. 매년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화성산업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라면 마땅히 지역과 사회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장학복지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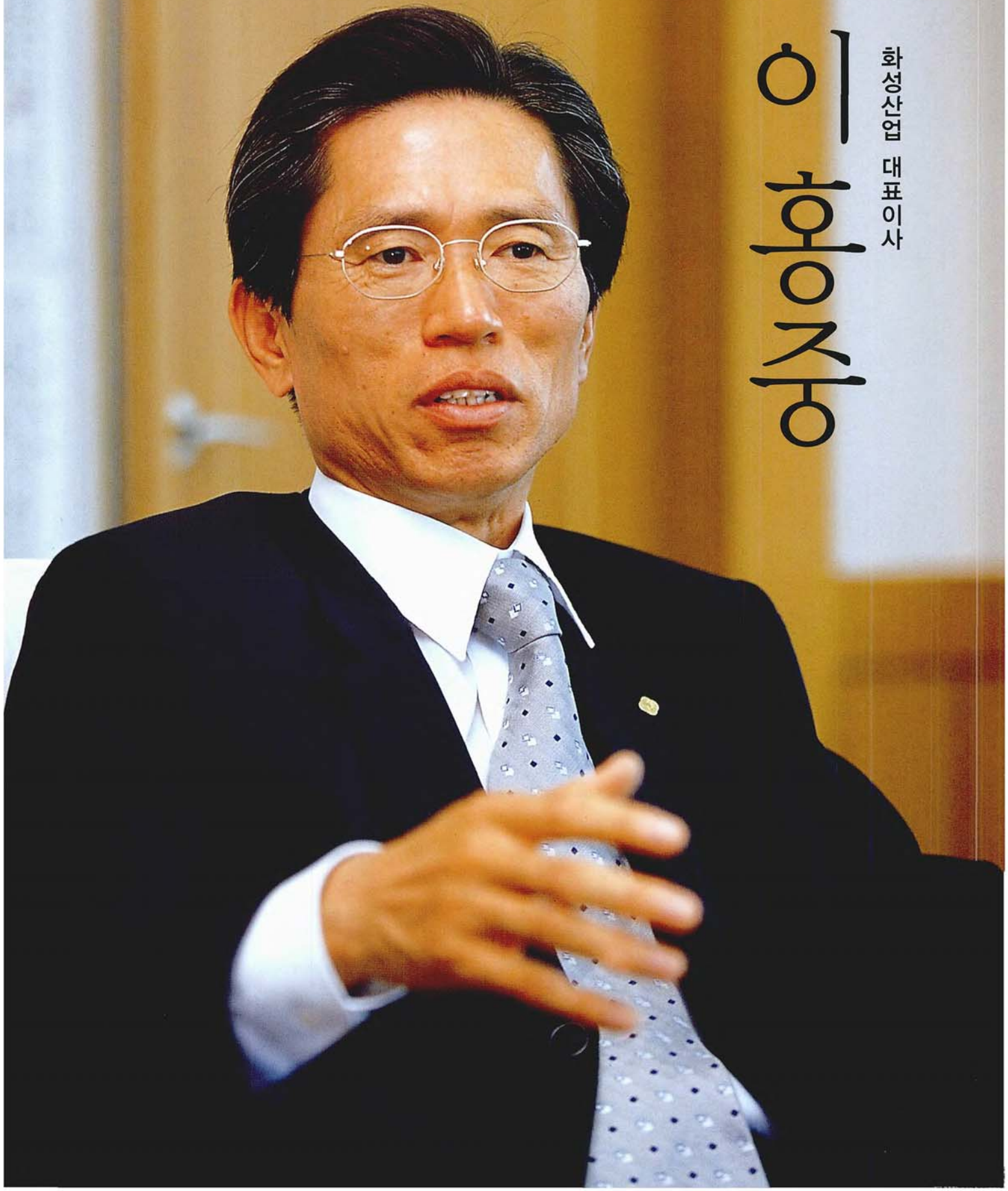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책임감 있게 노력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화성산업이 이제는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1 용인 보라 화성파크드림 산책로, 2 대구 북구 강북1차 화성파크드림 산책로, 3 대구 북구 강북2차 화성파크드림와이드 햇살마당.

화성산업 대표이사

이호영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기업으로의 도약

화성산업의 이홍중 대표이사가 생각하는 좋은 집은 살아가면서 가치를 느끼거나 살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집이다. 더불어 그는 도심 속에서나 홀로 떨어진 곳이 아니라 주변 도심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집이야말로 좋은 집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역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보다 철저한 시공과 기술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를 통해 첨단과 자연이 조화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게 올해 화성산업 이홍중 대표의 목표다.

이 대표는 기업 경영 철학에 대해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화성산업은 기술력 향상과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종 봉사활동, 장학복지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모든 부문에서 책임 경영을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동안 화성산업이 고객으로부터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지켜온 것은 정밀하고 다양한 사전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계획 설계로 제품의 모든 공정에 체계성을 갖추는 등 품질 우선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기술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 역시 화성산업이 다른 건설업체보다 높이 평가받는 밑거름이다.

화성산업은 올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약 7300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연친화적인 단지 설계와 수요자 중심의 신평면 구성으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수요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 제품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실생활에 편리한 주거라는 점을 차별화해 신평면 설계를 선보인다는 것.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평면 설계, 내부 마감재 등을 차별화·첨단화·고급화에 역점을 두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평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5월에 분양 예정인 화성시 향남택지지구 화성파크드림은 남향 중심의 탑상형과 관상형 형태로 지상 주차를 배제하고 지상 전체를 테마형 공원으로 꾸밀 계획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화성산업은 최근 친환경 예비인증은 물론 정보통신 특등급 예비인증을 받아 화성파크드림을 최고의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따른 개발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를 이뤄 나가며 초우량 건설회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